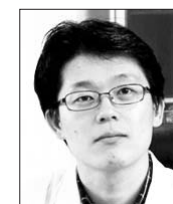


건강 칼럼

전염병과 격리

신종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으로 전국이 비상이다. 대구 경북의 모 종교 신도 중심의 확진자 증가세가 이제는 다른 일반인으로 확대 되면서 확진자 또는 확진자 접촉자 위주로 시행했던 자가 격리가 이제는 정상적인 일반인들에게도 권해지고 있다. 일명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명칭으로 코로나19 감염증의 예방적 차원에서 확진자나 접촉자가 아닌 정상적인 일반인들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권고 되고 있다. 격리에는 크게 표준주의와 전파매개주의 기준으로 나뉜다. 표준주의는 어떤 감염원이 발생하여 이에 대비하는 것이 아닌 병원이거나 환자에 대해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격리에 대한 기준이다. 따라서 병원에 입원한 모든 환자를 대상으



김 이 권
구암한의원장

로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혈액이 섞이지 않은 땀은 제외), 손상된 피부와 점막을 다룰 때 적용된다. 전파매개주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미생물의 감염경로에 따라 표준주의와 함께 적용하는 것으로 전염력이 강하거나 역학적으로 중요한 병원체에 감염된 것이 확인, 의심되는 환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다. 격리는 강도 또는 전파 경로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다.

- ▲엄격한 격리(Strict isolation) 접촉은 물론이며 공기전파로 전염되는 질병의 경우 적용되는 격리 수준이다. 환자들은 전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의 위생시설과 치료장비가 갖춰진 특별 시설 격리된다. 식사 및 배설물과 쓰레기도 별도 처리된다.
- ▲접촉 격리(Contact isolation) 접촉을 통해 일어나는 모든 전염을 막기 위한 격리로 의료진은 환자

와 접촉할 때 장갑을 착용하며, 필요시 보호복을 입는다.

- ▲호흡성 격리(Respiratory isolation) 호흡시 튀어나오는 입자들, 즉 비말 감염을 막기 위한 격리로 감염자와 접촉할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 ▲역 격리(Reverse isolation) 감염자로부터 질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격리가 아니라, 반대로 기저 질환이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환자를 주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격리를 말한다.
- ▲고강도 격리(High Isolation) 에볼라, 천연두 같은 감염성이 극도로 높은 질병에 대해서는 하는 격리로 장갑 착용, 보호용 고글이나 얼굴 보호장비, 방수 가운, 호흡기를 착용한 뒤에야 접촉할 수 있다.

독자제언

불법주정차, 남에게 피해를 주는 나만의 이기심

한 가구당 소유 차량 대수가 많아짐에 따라 불법주정차 및 주차대란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불법주정차들로 인해 다른 운전자들이 교통규칙을 위반해야 하는 일이 다반사이고,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 교통사고까지 초래하고 있어 어쩔 수 없는 일로만 간과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 회전구간 등에 주정차된 차량은 통행을 막아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갓길 또는 좁은 골목길에 양쪽으로 불법주정차된 차량은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시야를 막아 작?간접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다. 사망사고의 원인까지 되고 있지만 직접적인 사고 차량이 아닌 경우 불법주정차 차량의 운전자는 과태료만 내고 형사처벌은 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신속히 출동해야 하는 소방과 경찰의 긴급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도 문제이다. 긴급한 상황에서 출동을 지연시키는 것은 물론 현장 진입을 막아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피해를 만들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불법으로 주·정차를 할 경우 갑자기 차량들 사이로 뛰어나오는 아이들을 운전자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커진다. 불법 주정차한 운전자들은 본인의 차량으로 인해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를 금해야 한다. 인적·물적 피해가 급증하는 만큼 자신의 편리함만 추구하는 이기심과 안일함을 버리고, 불법 주정차 근절에 앞장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길 바란다.

배상범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경위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운전호법이 제정되면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상향 등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도 더욱더 강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음주 교통사고로 다치게 했을 경우 1년 ~ 15년 징역 또는 1천만원 ~ 3천만원 벌금, 음주 교통사고로 사망케 했을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강화 되었다. 또한, 도로교통법(19.6.25) 음주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은 0.03%이고, 음주운전에 대한 만허정치·취소 등 행정처분 수준 강화되어 혈중알코

올 농도 0.08% 이상 운전면허 취소,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경우 면허정지 수치라도 운전면허 취소가 된다. 경찰에서는 매년 음주운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많기에 아침 출근 시간대나 점심 및 심야시간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수시로 장소를 옮겨가며 음주운전 예방순찰 및 선별적 단속활동을 통해 다각적인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운전자들은 음주운전 처벌 관련 법규를 확인하여 준수하는 습관을 가져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피해를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신서운 교통관리계 경사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사설

신천지 시설 14곳 추가 확인 폐쇄

신천지가 한탄스럽다. 전국적으로 확진 환자와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도 신천지 측은 요지부동이다. 계속 비협조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가 이번에 추가로 종교 시설 14곳을 추가로 적발해 폐쇄했다고 밝혔기에 하는 말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총 88곳의 시설을 폐쇄하고 집회도 금지시켰는데 그것은 당연한 조치이다. 본보가 거듭 당부하고 있는 바 전북도는 청정 환경 지키기를 계속 강고히 해야겠다. 전국적으로 확진 환자가 6천 명을 넘고 사망자도 42명이나 된 것은 보통 사태가 아니다. 실시간대로 보도되는 뉴스를 보면 두려울 뿐이다. 확진 환자가 하루 밤 사이 수백 명 단위로 마구 불어나는 것도 그렇지만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경산시도 대구 못지 않게 매우 심각하다. 그리고 강원도의 원주 지역도 새로운 근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 전북도와 보건 당국은 잘

하고 있다. 그것도 아주 잘 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 7번 확진 환자의 경우가 좀 애매하다. 양성으로 판정이 났는데 하룻만에 음성으로 번복이 되었다니 말이다. 가족들도 음성으로 나온 것은 천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래도 혹시 모른다. 따라서 전북도와 당국 관계자들이 7번 확진 환자였던 30대 여성의 동선을 추적하는 것은 잘 하는 일이다. 그러한 꼼꼼한 애쓰 때문에 도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누리고 있다. 전북도와 당국관계자들에게 계속해서 칭찬과 격려의 말을 주고 싶다. 다른 광역 지자체와 비교해 우리 전북은 청정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신천지 신도 관계자들이 단순히 협조해주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연락두절 신도들은 부디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면 우리 전북 지역은 코로나가 완전히 퇴치될 때까지 큰 격정이 없는 지역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괜찮은 일자리 창출에 더 힘내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힘내야겠다. 언제고 하는 말이지만 도내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못 구해 고민이 깊어지는 나날이다. 도내에는 괜찮은 일자리가 여전히 부족하다. 일자리라는 게 비정규나 시간제 같은 것 이어서는 안 된다. 전북도는 지난해 취업률이 올랐다고 보도했지만 그것은 실상을 보고한 것이 아니다. 전북의 취업률은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 16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전북도가 때때마다 내놓는 일자리와 관련한 보고가 마뜩치 않다. 안타까운 세월이다. 현실과 희망이 같은 방향으로 상승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다. 전북도는 괜찮은 일자리 창출에 열정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다시 또 전북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일자리 창출 약속이 어떻게 돼가는 것인지 궁금하다. 그 일자리 창출에 구체적으로 힘을 실어야 한다. 미취업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비정규 취업자들도 비리는 비는 괜찮은 일자리이다.

전북도는 고용안정에도 마음을 두어야겠다.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닐 테지만 젊은이들은 피부에 와 닿는 실감을 말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도내 근로자의 40%가 비정규직이라고 지적했는데 지금은 그 수준을 훌쩍 넘어섰다는 짐작이다. 고용 구조의 현실이 이런데도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일자리 안정과 관련해서 전북도는 우리 지역의 현황을 솔직하게 평가해야 한다. 전북도는 젊은이들을 찾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눈이 너무 높은 게 아니다. 괜찮은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늘릴 수 있을까 전북도는 생각에 생각을 더해야겠다. 한때 반짝 빛나고 꺼지는 생색 수준의 일자리는 곤란하다. 젊은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미봉책은 안된다. 일자리를 구하느냐 못하느냐는 젊은이들에게 미래가 걸린 중요한 문제이다. 일자리다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북도는 더욱 분발해야겠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